

# Meritz 조선/기계

조선/기계 김 현

02. 6098-6699 / hyun.kim@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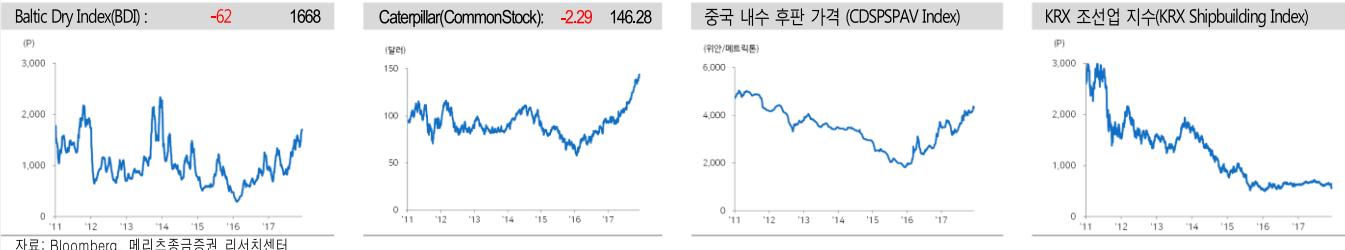


## 국내 주요 조선/기계 업체 Valuation

업체명	시가총액 (십억원)	외국인지분율 (%)	종가 (원)	1D	1M	3M	YTD	PER(x)		PBR(x)		ROE (%)	
				(%)	(%)	(%)	(%)	17E	18E	17E	18E	17E	18E
현대중공업	7,508.2	20.9	132,500	-1.1	-12.0	-2.9	-4.3	31.1	92.3	0.7	0.6	1.9	0.7
현대로보티스	6,498.4	19.6	399,000	0.1	0.8	-8.3	N/A	3.7	54	0.8	0.7	21.8	14.1
현대엘렉트릭	1,143.0	7.3	112,000	-1.3	-0.4	1.9	N/A	13.7	10.6	1.0	0.9	7.6	9.3
현대건설기계	1,733.3	10.5	175,500	0.9	-3.0	7.0	N/A	14.5	11.1	1.4	1.2	9.6	11.7
삼성중공업	2,815.8	18.0	7,220	-4.6	-42.2	-27.4	-21.9	30.1	455	0.4	0.4	1.5	1.0
대우조선해양	1,775.0	3.4	16,900	-1.2	-10.3	N/A	-62.3	1.0	9.5	0.4	0.5	63.6	4.9
현대미포조선	1,830.0	12.8	91,500	-1.9	-6.3	-0.7	36.2	3.8	19.7	0.7	0.7	20.9	3.6
한진중공업	342.5	4.3	3,230	-0.9	-12.3	-19.0	-4.0	-2.3	65.0	0.5	0.5	-18.7	0.7
현대엘리베이터	1,290.7	33.6	52,400	0.4	-5.4	0.8	-8.7	9.7	92	14	13	15.9	14.6
두산밥캣	3,433.5	28.0	34,250	-1.0	-0.3	-6.3	-4.5	15.8	12.7	1.0	0.9	63	7.4
현대로템	1,530.0	28.1	18,000	-8.4	-9.1	1.7	-0.8	41.5	232	1.1	1.0	2.6	4.5
하이록코리아	296.8	47.3	21,800	0.0	-23.4	4.8	33	10.8	99	0.9	0.8	8.7	8.8
성광밴드	286.0	13.8	10,000	-1.5	0.5	7.8	12.9	-34.8	884.0	0.6	0.6	-1.8	0.1
태광	288.9	16.6	10,900	0.0	4.8	19.0	31.5	-23.3	65.1	0.7	0.7	-2.9	1.0
두산중공업	1,692.8	7.4	15,900	-0.6	-9.1	-7.6	-41.5	-48.9	10.7	0.6	0.5	-12	4.6
두산인프라코어	1,830.3	10.8	8,800	-2.2	-4.6	5.9	-0.2	9.1	80	0.9	0.8	9.8	10.5
두산엔진	281.1	3.2	4,045	-3.7	-9.4	-0.9	23.1	27.2	395	0.5	0.5	1.9	1.3
한국항공우주산업	4,537.5	17.7	46,550	-1.1	-8.7	-0.4	-30.5	-68.9	26.7	3.4	3.2	-4.7	12.1
한화테크윈	1,856.8	18.7	35,300	-1.8	-5.4	-7.0	-18.8	28.9	18.1	0.8	0.8	27	4.3
LIG넥스원	1,267.2	11.9	57,600	-0.2	0.0	-24.1	-28.4	27.3	14.6	1.9	1.8	7.3	12.6
태웅	365.1	1.6	18,250	-0.5	-8.3	1.1	-18.7	N/A	N/A	N/A	N/A	N/A	N/A
동성화이텍	135.5	3.0	5,020	0.9	-2.9	2.7	-12.7	N/A	N/A	N/A	N/A	N/A	N/A
한국기본	240.9	15.4	5,480	2.0	-8.1	-5.5	-9.4	N/A	N/A	N/A	N/A	N/A	N/A

주: 카버리지 업체 PER/PBR/ROE는 메리츠종금증권 추정치, 그 외 업체는 Bloomberg 컨센서스 수치 / 자료: Bloomberg, 메리츠종금증권 리서치센터

## 주요 지표 및 차트



##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정부 '탈원전' 못 박았다.. 2030년까지 24기→18기 감축

산업통상자원부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원자력, 석탄 발전을 줄이고 LNG, 신재생 발전을 늘릴 계획으로 알려짐. 2030년 실효용량 기준으로 2017년 대비 원전은 20.9%→11.6%, 석탄은 33.5%→31.6%, LNG는 34.7%→38.6%, 신재생은 2.8%→7.1%로 비중이 변할 계획임. 특히 2030년 기준 수요를 113.4GW로 7차계획 대비 13% 낮춘 100.5GW로 목표함. 정부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전력수요 변화와 지능형 수요관리를 한다면 목표대로 탈원전이 가능하다는 기조로 알려짐. 또 정부는 석탄 개별소비세를 인상하는 등을 통해 석탄과 LNG 원가 격차를 줄일 계획으로 알려짐. (파이낸셜뉴스)

### Pantheon agrees aframax duo order at Hanjin Subic

한진중공업은 그리스 Pantheon Tankers에서 2척의 11.4만DWT급 Aframax 탱커를 수주했다고 알려짐. 가격은 4,250만달러에서 4,350만달러로 알려졌고, 필리핀 수빅 조선소에서 건조될 예정임. 인도는 2019년 말에 예정됨. Clarksons에 따르면 수빅 조선소는 현재 12척의 수주잔고를 보유함. (TradeWinds)

### '無파업' 약속 대우조선 노조, 7조 자문 지원 후 첫 파업

대우조선해양 노동조합이 2년 만에 파업에 나서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4시간 간 분위 파업에 돌입함. 노조는 당초 2천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310명만 파업에 동참했다고 알려짐. 그러나 과거 재판단에서 7.1조원 자금을 지원받은 조건으로 노조가 무파업을 약속했다는 점에서 문제될 수 있다고 알려짐. (머니투데이)

### 中, 2040년 장거리 LNG 수송 화물 25% 차지

IEA에 따르면, 중국의 LNG 수요가 2040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해 중국이 글로벌 LNG 장거리 수송 화물의 1/4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함. 특히 정부가 석탄 대체연료로 LNG를 장려하고 있다는 점을 주요 근거로 삼음. 에너지 믹스에서 LNG 점유율은 12%로 늘어나는 대신 석탄은 45%로 떨어질 전망임. (선박뉴스)

### Global capex to grow next year to \$400bn: WoodMac

컨설팅업체 Wood Mackenzie에 따르면 유가의 반등이 예상됨에 따라 석유 및 가스업체들의 Capex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특히 2018년 글로벌 Capex가 4천억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특히 유가 하락으로 지난 3년간 감소했던 심해 프로젝트 투자에서 15% 증가를 전망함. (Upstream)

### Names emerge for Total's LNGBV newbuild contest

오일메이저 Total이 컨테이너선사 CMA CGM에 LNG를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LNGBV(LNG벙커링선박) 용선에 8개 선사가 경쟁한다고 알려짐. LNGBV는 최초 건조되는 1.8만CBM급으로 예상되며, 0.5~0.65만CBM급만 제작됐음. 0.5~0.65만CBM급으로 건조된 선박 가격은 5~7천만달러로 알려짐. (TradeWinds)

### 중국 양장조선, 장쑤동팡중공업 인수 추진

중국 최대 민영조선사인 Yangzijiang 조선소는 조선시장 침체를 자국 조선소 인수로 대응하기 위해 Jiangsu Eastern Heavy Industries를 인수할 계획으로 알려짐. 최대 1억달러까지 투자할 용의를 밝혔고, 인수를 통해 주력 선종인 벌크선과 컨테이너선 이외 LNG선과 LPG선에 진출하고자 한다고 알려짐. (EBN)

동 자료는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습니다. 당시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2017년 12월 15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율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시의 조사분석 담당자는 2017년 12월 15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김현)  
동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시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원칙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동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